

세계 곳곳 폭염·산불·홍수...지구촌 덮친 이상기후

미국, 아이오와주는 폭우·뉴잉글랜드주는 폭염에 온열환자 급증 엘살바도르·과테말라·멕시코·스위스 폭우로 산사태 등 피해 발생 그리스 전역 수일째 산불 70여건 발생...폭염·강풍에 진화 어려워

지구촌이 극한의 날씨에 신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폭염과 함께 폭우 피해가 잇따랐으며 중미 일부 국가에서는 폭우와 홍수로 수십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유럽에서도 폭우와 폭염, 산불 피해가 속출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미국 아이오와주의 록 벨리에서는 폭우로 수백명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아이오와주에서는 불어난 물에 도로가 잠겨 지붕과 나무 꼭대기만 보일 정도로 지난 수주간 비가 쏟아졌다.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록벨리를 포함한 2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인구 1만 4000여명이 거주하는 아이오와주 하워든과 스펜서에서는 폭우로 하수처리장 전기가 끊기기도 했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최대 도시인 수폴스에 3일간 177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수폴스에서 남동쪽으로 48km 떨어진 캔톤에는 457mm의 폭우가 쏟아졌다. 폭우로 인근 고속도로 여러 곳이 폐쇄됐다. 통행이 재개됐다.

크리스티 님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주 동남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네소타주에서도 폭우로 고속도로와 지방도 등이 폐쇄됐다. 인구 4800명의 마을 윈덤에서는 32mm의 비가 더 내렸고 이 지역 디모인강이 범람했다.

미국 다른 지역에서는 폭염이 계속됐다. 미국 기상청(NWS)은 미국 전역에서 약 1500만 명이 폭염 경보, 9000만명이 폭염 주의보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도 크게 늘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지난 20일 병원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인구 10만명당 833명을 기록했다. 지난 17일(인구 10만명당 57명)과 비교하면 불과 며칠 새 크게 늘어난 것이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도 지난 19일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인구 10만명당 62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NYT는 전했다.

중미 일부 국가에서는 폭우로 수십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에서는 계속되는 폭우로 강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일어났으며 주택이 파괴됐다. 엘살바도르 당국은 지난 21일 기준



그리스 산불로 인해 불타는 올리브나무.

으로 최소 19명이 폭우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에서는 홍수로 10명이 사망하고 1만 1000명이 대피했으며 온두라스에서도 1명이 숨지고 1200명이 대피했다.

멕시코에서는 열대성 폭풍인 '알베르토'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최소 4명이 숨졌다.

유럽에서도 폭우와 폭염, 산불 피해가 잇따랐다. 스위스 남서부에서는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

생해 3명이 실종됐다.

스위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그리종주의 고산지대인 메솔치나 계곡에 124mm의 비가 쏟아졌다. 한 시간에 63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이 정도의 집중 호우는 3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고 스위스 기상청은 전했다.

그리종주 소터 마을에서는 주택 3채와 차량 3대가 급류에 휩쓸려갔으며 발레주에서는 21일부터

내린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 230명이 대피했다.

마터호른산으로 가는 길목인 체어마트의 도로와 철도도 한때 폐쇄됐다.

그리스는 수일째 이어지는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리스 전역에서 산불 70여건이 발생했으며 강풍과 높은 기온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리스 안드로스섬에서는 소방관 30여명과 항공기 2대, 헬리콥터 5대 등이 동원돼 산불을 잡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이 지역 4개 마을 주민은 대피한 상태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 남쪽의 펠로폰네소스 당국은 수일째 이어지는 산불로 인명피해가 우려되자 6개 마을에 대피령을 내렸다.

폭염이 덮친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해안지역에서는 전력 과부하로 한때 대규모 정전까지 발생했다.

지난 21일 이 지역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치솟으면서 전력 소비가 급격히 증가한 데다 더위로 인한 과부하가 겹쳐 정전이 발생했다고 CNN 방송이 전했다.

정전으로 보스니아 수도인 사라예보 등에서는 신호등이 고장 났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는 물 펌프가 가동을 멈췄다.

이들 4개국 전기 공급업체들에 따르면 전기 공급은 정전 발생 당일 대부분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아무나 못사는 에르메스 '버킨백' ... 1600만원에 사서 3200만원에 판다

미국 WSJ '버킨백 경제학' 분석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스의 유명 가방인 '버킨백'을 둘러싼 경제 법칙은 일반적이지 않다.

25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버킨백의 높은 가격과 희소성으로 인해 구매자가 매장 직원에게 깎듯한 인사를 건네야 할 정도로 고객과 매장 직원 간의 일반적인 권력관계를 뒤집어 놓고 있다.

버킨백의 기본모델인 검은색 '버킨 25' 백의 매장 가격은 세전 1만1400달러지만, 구매자는 이 백을 구입하자마자 곧바로 2배가 넘는 2만 3000달러에 리셀러 업체에 넘길 수 있다.

프리베터 등 주요 리셀러 업체는 가방을 매입하자마자 거의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라스베이거스의 팝업 매장을 통해 3만 2000달러에 판매한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구매하려는 부유층이 워낙 많은 탓에 돈 많은 쇼핑객이라 할지라도 매장에서 버킨백을 손에 넣기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수많은 대기자 명단 중 누구에게 버킨백을 판매할지를 일차적으로 담당 점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손꼽힐 만한 갑부 고객이 직원과 친해지



크리스티 경매에 나온 에르메스 히말리아 버킨백.

기 위해 집에서 직접 구운 쿠키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WSJ은 전했다.

일부 고객은 버킨백을 손에 넣기 위해 값비싼 비온세 콘서트 티켓이나 호화 여행 상품권을 주거나 아예 현금 봉투를 건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점원과 좋은 관계를 쌓은 뒤에는 에르메스 매장에서 구매 이력을 쌓아야 한다.

실크스카프, 시계 등 버킨백이 아닌 다른 에르메스 제품에 큰돈을 지출해야 비로소 버킨백을 구매할 '자격'을 갖췄다고 직원은 판단하기 때문이다.

판매 방식의 경우 버킨백이 프랑스 본사에서 개별 매장에 도착하면 매니저는 개별 판매 직원에게 가방을 배정하고, 각 직원은 저마다 관리하는 대기 고객 명단 중 '구매 자격'을 갖춘 고객을 선별해 매니저의 판매 승인을 받는다.

구매자는 한 해 버킨백을 2개까지만 살 수 있다. 지난해 미국 마이애미 에르메스 점포의 한 직원은 한 고객에게 그보다 많은 버킨백을 판매했다가 해고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때로는 구매자가 원치 않는 제품을 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 구매자는 8만 7500달러짜리 에르메스 카누를 산 뒤 버킨백 희귀 모델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미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2명은 지난 3월 에르메스의 이 같은 판매 방식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기위팔기에 해당한다며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버킨백을 바라는 이유는 높은 가격과 희소성 탓에 부의 상징이 됐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52도 폭염...사우디 성지순례 사망자 1300명

열사병 등 46만5000건 진료

낮 최고기온 50도를 넘나드는 '살인 더위' 속에서 치러진 이슬람 정기 성지순례(하지) 사망자가 1300명을 넘긴 것으로 2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SPA 통신에 따르면 파하드 알잘라젤 보건부 장관은 이날 국영 TV에 출연해 하지 기간 온열질환으로 130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사망자 200여명의 약 6배가 넘는 수치다.

올해 성지순례의 사망자 관련 공식 집계는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몇년간의 하지가 지난 19일 마무리된지 5일 만이다. 알잘라젤 장관은 많은 사망자가 신봉증을 소지하지 않은 탓에 신원 확인과 시신 처리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알잘라젤 장관은 숨진 이들의 약 83%가 사우디 당국의 순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맹발 아래 제대로 된 휴식처나 회복 없이

먼 거리를 도보로 이동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망자 중 다수는 노인 또는 만성 질환자였다"며 사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알잘라젤 장관은 순례객 중 열사병 등 증세를 보이는 이들에게 총 46만 5000건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14만 1000건은 순례 미허가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사우디에서는 지난 17일 메카 대사원 마스지드 알하람의 기온이 섭씨 51.8도까지 치솟는 등 하지를 전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이슬람력 12월 7~12일 치러지는 하지는 무슬림이 반드시 행해야 할 5대 의무 중 하나이며 가장 성스러운 종교의식으로 꼽힌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일생 반드시 한 번은 이슬람 발상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찾아야 한다.

이슬람력의 1년은 그레고리력보다 10일 정도 짧아서 성지순례 기간이 매년 당겨지기 때문에 여름철과 겹치기도 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